

군포문화재단 설립 추진

2009년 01월 18일 (일) 16:04:43

박완규 기자 [✉ wkp@kihoilbo.co.kr](mailto:wkp@kihoilbo.co.kr)

【군포】 군포시는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'군포문화재단'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.

시에 따르면 오는 2월까지 관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. 3월에는 발기인 총회를 거친 후 상반기에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제정할 계획이다.

시는 올 하반기까지 문화재단의 운영체계에 대한 조직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.

군포문화재단은 군포지역의 문화예술 창작·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, 관계 자료 수집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. 또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매년 수리수리마법축제, 전국수리음악콩쿠르도 맡게 된다.

군포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시에 당면한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이 더욱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남길우 문화체육과장은 "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"며 "타 지역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우수 사례를 참고로 기금과 출연금 유치는 물론, 위탁사업과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안정화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